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축사

임재완 |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 전남대 교수

2005년, 올해는 재외한인들이 세계 각지에 정착한지 100년이 넘는 해로서, 광복 6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재외한인들은 국내적·정치적 상황과 거주 국가에서 소수민족의 이민자로서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주 국가별로 수많은 재외동포 NGO들이 결성되어 재외한인사회의 결속과 친목,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외한인사회는 국가차원에서 보다 오히려 민족 NGO들의 활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재외한인 민족NGO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NGO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과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재외한인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2003년도부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이 분야에서 국내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연구단으로 성장하였고, 재외한인의 정치·경제·사회·문화·방면의 현황, 활동,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참석하신 여러 민족 NGO 활동가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연구단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외동포 NGO 활동가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계획되고 진행되는 동안 어려운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주최 단체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애정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재외한인 NGO활동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는 그동안 거주 국가에서 민족을 대표하면서도 민족의 고통과 차별 속에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히 현지 국가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이시는 활동가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애환을 달래고, 향후 우리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동포들의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NGO 활동가 입장에서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모국으로부터, 현지국가로부터 부족한 지원과 지역한인사회에서 각기 특수한 조건들이 달라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해방된 지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외동포들의 생활과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재외동포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정부나 기타 단체에서 재외한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NGO 활동가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멀리서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 활동가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길 기원하고, 이 자리가 민족의 화합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